

“사회적가치,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투자한다”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청중평가단 모집 및 국민가치투자자 운영

-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가치를 직접 평가할 ‘청중평가단’ 30명 모집
- 가상 투자 체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국민가치투자자’ 운영
- 11월 4일(수) ‘밸류업 데이(Value-up Day)’서 본선 10개 기업의 최종 성과 발표·심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는 행사인 ‘밸류업 데이(Value-up Day)’에 참여해 본선 진출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평가할 ‘청중평가단’을 모집하고, 현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청중평가단’과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은 국민이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평가·투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청중평가단’의 모집 규모는 총 30명으로, 대상은 사회연대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다. 선발된 청중평가단은 오는 11월 4일(수)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밸류업 데이’에 참석해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의 발표를 듣고 평가한다. 청중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공모전 최종 심사에 가점 5점으로 반영되며, 평가를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활동증명서와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행사 현장을 찾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민가치투자자는 본선 진출 기업의 발표를 들은 뒤 총 1,000만원의 가상 투자금을 3개 기업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참여도에 따라 추천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수령할 수 있다.

‘밸류업 데이’는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수상기업을 선정하는 자리다. 치열한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기업이 사회적가치와 사업모델을 발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등 수상기업을 결정한다. 공모전은 총상금 5,000만원 규모로 운영된다.

앞서 진흥원은 본선 진출 기업의 사업모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을 연계한 ‘멘토링의 날’을 진행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투자유치 발표 자료 제작, 사회적가치 향상 전략,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의 환류를 바탕으로 최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청중평가단과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은 국민이 사회적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우수한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발굴하는 참여의 장”이라며,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중평가단을 모집하고 국민가치투자자가 참여하는 ‘밸류업 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공식 누리집 (<https://2026svbiz.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팀	책임자	팀 장	안은숙 (031-697-7850)
		담당자	대 리	박서우 (031-697-7854)

